

학위수여식 기념사 [제41회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

존경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학부모님과 동문, 내외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림의 교정에서 지성과 인성을 갈고닦아, 더 넓은 세상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자녀들이 한림의 인재로 성장하기까지 묵묵히 헌신하며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보내주신 학부모님들께도 무한한 축하와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림대학교를 위시한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은 세계 2만 5천여개의 대학 중에서도 매우 수준 높고 엄격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양, 전공, 실습, 논문으로 촘촘히 구성된 코스를 100% 만족해야만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림대학교의 학생들은 높은 졸업률을 보이며 대부분 성공적인 진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림대에는 2,500여 개의 교과목이 제공되며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이론 및 실습을 조화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은 이러한 과정에서 습득한 역량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진로를 잘 설계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이제 대학에서 배운 것만으로 미래를 헤쳐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이 빠르게 등장하고 소위 인기 직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선망의 대상인 의사, 변호사, 교수, 언론인은 AI의 등장으로 점점 매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대신 인간만이 잘할 수 있는 창조 관련 직업, 융합전공, 서비스 분야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 5~6차례 직업을 바꾸어야 살아남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대비하여 대학의 교육 방식, 내용, 목표가 모두 유연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개인의 역량이 변화함에 따라 여러분은 졸업 이후에도 원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을 보충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첨단 경영 기법의 범람, 날로 심해지는 글로벌 경쟁 때문에 과거 방식을 답습하는 것은 곧 도태를 의미합니다. 자기 계발을 계속하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소위 평생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는 커뮤니티 교육원을 개편하여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과목과 나노디그리(Nano-degree) 등의 혁신적인 교육 과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한림은 여러분의 평생 학습 동반자로서 언제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대학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은 독립된 인격체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등 결정해야 할 때 순간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학 총장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여러분께 몇 가지 진심 어린 당부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결정을 본인 주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십시오. 이것이 어려우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신만의 견고한 가치관을 지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한림대학교와 일송학원의 설립자이신 윤덕선 선대 이사장께서 평생의 신념으로 삼으셨던 “주춧돌 정신”을 다시금 상기해 봅니다. 자신을 화려하게 내세우기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공동체를 떠받치며 성실히 제 역할을 다하는 삶의 자세, 그것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는 가장 훌륭한 가치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는 미래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려면 소통, 배려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가치들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졸업은 여러분이 새로운 여행을 떠나도 좋다는 허가증에 해당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설계하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엄청난 준비와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준비하고 작은 성취를 쌓아나가다 보면 몇 년 뒤에는 멀리 와 있게 됩니다. 1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10시간을 쓰면 3년입니다. 긴 호흡이 필요하겠지요.

한림대 구성원, 동문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오늘 대학 문을 나서는 졸업생들을 힘차게 응원해 주십시오. 안전한

울타리 안을 벗어나 예측 불가능한 사회로 첫발을 내디딜 때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크게 필요합니다. 두 팔 활짝 벌리고 응원하고 또 안아 주세요. 한림대학교는 촘촘한 졸업생 지원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성공적으로 학위를 받는 모든 분들과 주위 가족 여러분들의 앞날에 성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2. 25.

한림대학교 총장 최양희